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없다면 평화의 미래에 먹구름

-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가족은 수감자 행방을 알 수 없다.
- 중국에서 체포된 북 이탈자는 송환되어서는 안된다.
- 공개 처형 목격 사례가 여전히 있다.

제네바/서울 (2019년 6월 21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역사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올바르고 정당한 결정을 내린다면 평화 속에 번영하는 한반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인권 전문가가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닷새 간의 방한을 마무리하며 북측 내 인권 상황 개선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특별보고관은 “북측 정부에 평화와 개발을 위하여 인권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길 촉구합니다”고 모두발언문을 통해 말했다.

“먼저 관리소(정치범 수용소)를 공개합니다. 송환된 북 이탈자를 관리소로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수감자의 가족은 수감 장소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가족뿐 아니라 수 백만의 다른 가족도 사랑하는 이의 생사를 파악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북 이탈자를 송환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중국이 북 이탈자 생사 결정에 인도적 원칙을 고려한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측으로 송환될 경우 이탈자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선적으로 고려하길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공개 처형이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 우려를 표합니다. 북 주민은 공개 처형과 같은 잔혹한 행위와 관리소에 보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편 제가 만난 북 주민들은 정보와 자유에 목말라있었습니다. 북 주민이 안정적으로 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만한 환경을 조성하길 북측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도 완화해야 합니다. 남측 드라마를 보거나 외국 음악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반국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평화가 지속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

토마스 오헤나 키타나 (아르헨티나)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또한 기업형사책임 건도 다뤘다. 과거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추가 정보 및 언론사 문의는 Madoka Saji (02 725 3525, msaji@ohchr.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타 유엔 독립전문가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언론 부서(Media Unit)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

Mr Jeremy Laurence – Media Unit (+ 41 22 917 9383 / jlaurence@ohchr.org)

태그 및 공유 - 트위터: [@UNHumanRights](#) 페이스북: [unitednationshumanrights](#)